

【 주간 포커스 】

FY2009 국내 손해보험사와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경영성과 비교

김동겸 선임연구원

FY2009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투자여건 개선으로 전년에 비해 17.6% 늘어난 1조 5,414억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특정 상품에 편중된 영업 방식과 예금, 채권 등 안전 자산 위주의 투자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손해보험산업의 FY2009 당기순이익은 1조 5,4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하였는데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간 경영실적에 큰 차이가 나타남.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였으나 적자폭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가운데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여 1조 6,27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
- 이에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¹⁾의 경우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하여 833억원의 적자를 기록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보유보험료 기준) 또한 FY2008 4.9%에서 FY2009 4.7%로 하락

□ FY2009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실적 악화는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보험영업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

-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년 보다 649억원 감소한 1,298억원의 적자를 기록
 - 사업비율²⁾은 전년 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나 국내 보험회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급보험금 증가에 따른 손해율³⁾ 상승으로 합산비율⁴⁾이 103%에 달함.

1) 2010년 3월말 기준 현지법인 3개사, 지점 14사 등 총 17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영업 중임.

2) 사업비율 = 사업비/보유보험료

3) 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4) 합산비율 = 손해율+사업비율

<표 1>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사합계		국내 손해보험회사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FY2008	FY2009	FY2008	FY2009	FY2008	FY2009
보유보험료	35,885,030	41,403,681	34,113,651	39,446,830	1,771,378	1,956,814
보험영업이익	△849,230	△936,523	△784,369	△803,854	△64,861	△129,750
투자영업이익	2,630,659	3,141,303	2,559,254	3,073,880	71,405	67,083
당기순이익	1,310,668	1,541,385	1,321,514	1,627,229	△10,846	△83,285
손해율	76.35	77.74	76.89	78.11	65.48	70.25
사업비율	25.01	23.26	24.55	22.77	33.93	32.88
합산비율	101.36	101.00	101.44	100.88	99.41	103.13

□ 이처럼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국내 보험회사와는 달리 특정 보험상품 판매에 편중되어 수익 다각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퇴직 및 개인연금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성보험의 판매 비중이 높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특종보험에 대한 판매 비중이 국내 손해보험회사 보다 높음.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AHA, ACE는 상해 및 질병보험에, 페더럴, 미쓰이는 특종보험에, 젠워스의 경우 모기지보험 등 특화된 보험상품을 판매

<표 2> 손해보험회사 종목별 경영성과

(단위: %)

	국내손해보험사			외국 손해보험사		
	상품구성비	손해율(FY08)	손해율(FY09)	상품구성비	손해율(FY08)	손해율(FY09)
일반보험	13.0	70.7	62.8	37.9	61.2	62.7
화재	0.7	39.8	32.3	0.4	36.4	18.1
해상	1.9	135.2	78.5	1.9	66.8	70.0
보증	3.0	48.9	58.0	0.0	25.3	44.8
특종	6.9	66.4	63.4	35.6	61.4	60.5
기타	0.5	83.8	66.9	0.0	44.3	86.8
자동차보험	25.6	69.4	75.3	55.0	73.5	81.5
장기성보험	61.3	81.9	82.0	7.1	69.1	91.6
합계	100.0	76.9	78.1	100.0	65.5	70.2

주 : 상품구성비는 2010년 3월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특정상품에 대한 편중도가 높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외부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특정 종목의 영업수지 악화가 회사 전체 경영실적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지법인 원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 증가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99억원 감소한 241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 원수사 지점의 경우 질병보험의 손해율이 전년보다 17.8% 상승한 101.9%를 기록하여 629억원의 적자 발생

□ 한편,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영업이익도 전년 보다 43억원 감소한 671억원을 기록하였는데,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자산구성 내역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국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운용자산 대비 현·예금, 국·공채, 대출채권 비중이 5.5%, 23.2%, 22.9%를 차지하는 반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현·예금, 채권의 비중이 각각 35.6%, 50%를 차지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국내 손해보험회사와는 달리 현·예금 및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주가상승 등의 효과를 누리지 못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FY2008 4.76%에서 FY2009 5.06%로 상승한 반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5.64%에서 4.26%로 하락 KiRi